

대구 소방관 감동시킨 광주 기부천사

대구 소방관에 152만원 남기고 사라진 광주 보험설계사

형제도시 소방관들 위해 써달라며 익명으로 현금·편지 전달 대구소방본부 "기부자 뜻 따라 대원들에 소방용품 보급 예정"

익명의 광주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고생했다며 대구 소방관에게 150여만원을 기부해 눈길을 끈다.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대구 동부소방서 119구급대에 4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불쑥 나타났다.

그는 사무실 문을 열고는 "고생 많으십니다"란 말과 함께 봉투 2개를 던지고 급하게 밖으로 나왔다.

사무실 근무자는 밖으로 나가 이 남성을 찾았으나 빠르게 동대구역 방향으로 이동해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이 남성이 남긴 봉투에는 현금 152만원과 감사 편지가 들어있었다.

그는 편지에서 "빛고을에서 보험설계사 겸 보살 강의를 하는 40대 중년 남자"라고 자신을 밝힌 뒤 "코로나로 영업을 어려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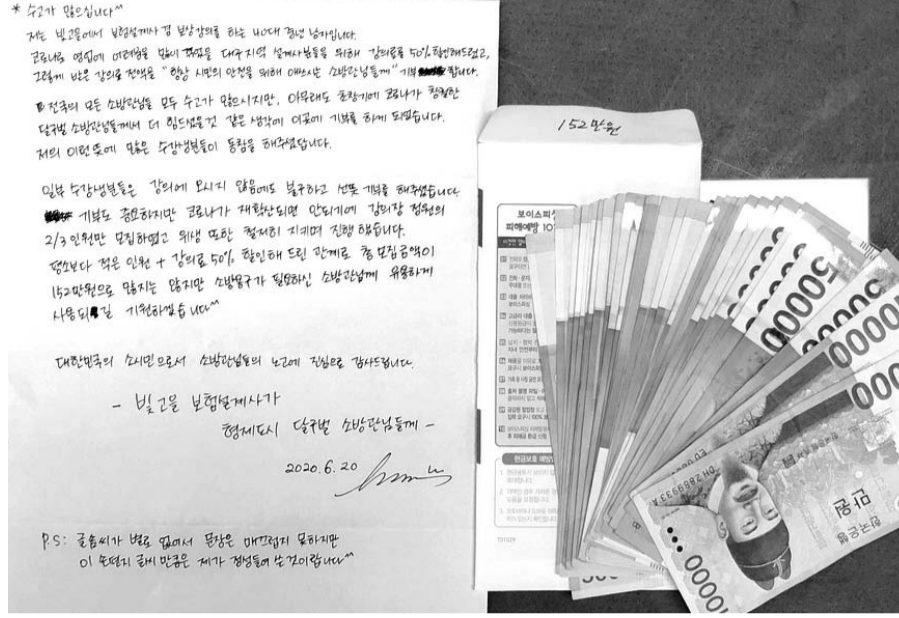
많이 겪었을 대구지역 설계를 위해 강의료를 50% 할인했고 그렇게 받은 강의료 전액을 시민 안전을 위해 애쓰는 소방관들께 기부한다"고 손글씨로 써놓았다.

이어 "초창기에 코로나가 창궐한 달구벌 소방관이 더 힘들었을 것 같은 생각에 이곳에 기부하기로 했고 이 뜻에 많은 수강생이 동참했다"며 "일부 수강생은 강의에 오지 않음에도 선뜻 기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형제도시 달구벌 소방관님들께"라고 표현해 대구 소방관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영남과 호남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영호남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대통합 역할을 하기 위해 2013년 3월 달빛동맹 공동협력협약을 맺은 뒤 각종 행사에 교차 참여함으로써 협력을 꾀하고 있다.

2월 초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



광주 익명의 기부자가 지난 19일 대구 동부소방서에 전달한 편지(왼쪽)와 성금.

생했을 때 대구시가 가장 먼저 광주에 보건용 마스크 1만장을 지원했다.

대구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자 광주시는 곧바로 대구에 보건용 마스크 4만장, 생필품 세트 2000개 등 구호 물품을 수차례 지

원했고 병원 병상을 지원해 화합을 꾀했다.

소방 관계자는 20일 "기부자 뜻에 따라 기부금으로 소방(구급)용품을 구매해 구급대원에게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영광 농·축협 임직원, 사랑의 헌혈 참여



영광지역 농·축협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영광사무소 임직원 70명은 최근 백수읍 복지센터 등지에서 사랑의 헌혈에 참여했다. <농협 영광구부 제공>

광주교육청, 119안전센터 의료용 방호복 전달식



광주교육청은 광주소방안전본부와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119안전센터 의료용 방호복 전달식'을 지난 19일 광주소방안전본부에서 개최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서수용 회장 담양 한재초에 열화상카메라 기증

서수용(사진) 담양 한재초등학교 총동문회장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모교에 열화상카메라와 발열감지 온도 체크기를 기증했다.

21일 담양 한재초등학교에 따르면 서 회장이 지난 18일 후배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1600만원을 기증했다.

성금으로 22일 한재초등학교와 한재중학교에 열화상카메라와 발열감지 온도 체크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담양출신 사업가인 서 회장은 "어려움에 처한 모교와 후배들을 응원하고 코로나19로부터 조금이나마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



해 고심한 끝에 발전기금을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수년째 한재초등학교 총동문회장을 역임하면서 거액의 동문발전기금과 장학금을 내놓았으며

올해 개교 10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준비위원장을 맡아 교향 사랑과 모교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대답 e-편한 세상' 브랜드로 담양읍에 747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분양 공급하고 있다.

/담양노년화 기자 nyc@

세도리 바이오닉스, 지역 아동에 세도리수 200박스 후원

㈜세도리 바이오닉스(대표 원동연)가 최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은영)에 지역사회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세도리수' 200박스를 후원했다.

세도리수는 '씻음에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물'이라는 뜻으로, ㈜세도리 바이오닉스에서 판매 중인 무알콜·무색·무취 친환경 살균·소독·탈취수(HOCI)다.

후원물품은 광주아동복지협회를 통해 광주 지역 12개 보육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원동연 ㈜세도리 바이오닉스 대표는 "저희 제품이 제 고향 광주의 어린이들에게 잘



전달되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대촌중앙초 학부모회, 전교생에 마스크 배부



대촌중앙초 학부모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마스크 나눔' 행사를 지난 19일 진행했다. 대촌중앙초는 학부모회 임원들과 함께 엄미들의 사랑이 담긴 마스크를 전교생에게 배부했다. <대촌중앙초 제공>

TV프로그램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이맛에 산다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엄마가 바람났다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0 KBS 뉴스	00 기막힌 유산(재) 40 무한리필 셀러드	35 930 MBC 뉴스 50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저녁 같이 드실래요(재)	10 SBS 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야생여정(재)	00 개는 훌륭하다(재)		00 우리가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35 풀짙 영화가 좋다(재)	00 12 MBC 뉴스 20 동해수호대 50 뽀뽀모두야 놀자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정재영의 이슈IN(재)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캐치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2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킴즈 글로벌 동물 뉴스 50 콘텐츠 박물관 건강한 집 세계의 예코하우스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연중기획 -빛고을행복아카데미			00 뉴스브리핑
3	30 미니다Q(재)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맛에 산다(재)	
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셀러드(재)	00 장애인인 날 특집 다큐 스페셜 마음으로 보는 세상	00 브라보 마이 라이프(재)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TV는 사랑을 싣고(재)	00 5 MBC 뉴스 3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30 오매! 전라도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50 위험한 약속	35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시사타지! 따따부따(재)
8	30 기막힌 유산	30 글로벌24 55 옥탑방의 문제아들	55 저녁 같이 드실래요(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저녁 같이 드실래요?	
10	00 6.25 전쟁 70주년 기획 가요무대	00 특선다큐 일곱 개의 대륙, 하나의 지구	50 리얼연애 부러우면 지는거다	20 3주년 출격! 특집 동사이동 2 너는 내운명
11	00 더 라이브 4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00 개는 훌륭하다		
12	00 다큐 인사이트(재) 55 생활의 발견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KBS 재난방송센터(재)	20 생생 월드인부 스페셜	20 나이트 라인 50 앙코르 고향건축물 스페셜

EBS1

07:00 꼬마버스 타요	12:30 EBS 마스터	17:45 피피루 안전특공대
07:15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	13:00 EBS 다큐프라임	18:00 생방송 퓌!퓌! 보니 하니
07:30 뽀뽀뽀 뽀로로	13:50 다큐 로그인	19:00 형사 가제트
08:00 당동댕 유치원	14:40 마사와 곰	19:30 최고! 후기심씩지
08:30 출동! 슈퍼윙스	14:55 뽀로로와 노래해요(재)	19:45 자이언트 팽TV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00 해이와 해이	20:00 돈이 되는 토크쇼 - 머니톡
09:00 픽시	15:10 꼬마버스 타요(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30 페파 피그	15:25 출동! 슈퍼윙스(재)	<대자연의 위로, 탄자니아 -인도양의 꽃, 탕가>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5:40 뽀뽀뽀 뽀로로(재)	21:30 한국기행
10:30 한국기행(재)	15:5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재)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1부 비밀의 계곡을 찾아서>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6:10 픽시(재)	21:50 EBS 다큐프라임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25 방귀대장 뽀뽀이(재)	22:40 야생의 지구
12:00 EBS 정오뉴스	16:40 당동댕 유치원(재)	23:30 EBS 비즈니스 리뷰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17:00 EBS 뉴스	
12:25 세상의 모든 법칙	17:20 개구쟁이 스머프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2일(음 5월 2일 丙申)

<p>36년생 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오류의 근원이 되기에 충분하다. 48년생 순천지는 흥이요, 역천지는 망이 아니라. 60년생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일이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72년생 오래 계속 될 것이니 각오하고 임해야 한다. 84년생 힘들어 행하지 않아도 저절로 변하여 잘 될 것이다. 96년생 자연스러운 것이 제일 좋다. 행운의 숫자 : 46, 94</p>	<p>42년생 절실할 때에 해결해 주는 이가 있으리라. 54년생 뜻밖의 일로 인해서 하루 종일 매달릴 수다. 66년생 거시적 관점이 필요하다. 78년생 끝까지 주의하라. 90년생 목적이 분명해야만 명쾌한 결과를 도모할 수 있다. 02년생 어떠한 유혹을 한다하더라도 듣고 참고만 하는 것이 현명하다. 행운의 숫자 : 14, 58</p>
<p>37년생 오직 통일 된 원리로 일관성 있게 계속되어야만 할 것이다. 49년생 미끼일 수 있으니 유혹에 넘어가서는 아니 된다. 61년생 눈요기에 그쳐지지 덤덤 물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73년생 안되면 되게 하라. 85년생 정도를 걸으면 약을 미련에 방지할 수 있다. 97년생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미리 계산하고 들어가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4, 74</p>	<p>31년생 오해를 풀고 나면 불면이 해소 되리라. 43년생 대체로 변화의 시도와 응용이 이롭다. 55년생 마음이 있다면 말로 표현해야 효과를 본다. 67년생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이가 생길 수도 있다. 79년생 강도와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형세이다. 91년생 장소의 선정도 잘 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31, 55</p>
<p>38년생 상호 공존하는 성공을 만들어 가자. 50년생 가시적인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미리 대안을 마련함이 좋다. 62년생 외형까지 관리한다면 효과가 배가 된다. 74년생 진본을 가감하여 사익을 도모하려는 이가 보인다. 86년생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 98년생 다양하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74, 89</p>	<p>32년생 불가피하다면 적극적으로 즐기는 편이 훨씬 낫다. 44년생 진행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참아야 할 일이 생긴다. 56년생 분명한 책임 의식이 절실한 때이다. 68년생 체면치레가 끝났을 때 될 수도 있으나, 80년생 기본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더할 수 없다. 92년생 사소한 부주의가 구설과 시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1, 62</p>
<p>39년생 지식보다 참다운 지혜가 더 요청 되는 때이다. 51년생 생애의 이권 아래에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모여들 것이다. 63년생 합의하에 선택하면 틀림없을 것이다. 75년생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것이니 잘 활용하라. 87년생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회복할 수 있다. 99년생 술에 넣은 팔이라도 익혀야 먹는 법이 아니라. 행운의 숫자 : 38, 60</p>	<p>33년생 약담 끝은 없어도 덕담 끝은 있느니라. 45년생 의식하지 못한 부분에 허점이 있다. 57년생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인식하면 된다. 69년생 착실하게 진행한다면 앞선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81년생 더 이상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93년생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지내야 편하다. 행운의 숫자 : 24, 88</p>
<p>40년생 관리에 세심한 공을 들여야 할 때다. 52년생 부단한 노력이 확실한 미래를 담보하는 지경에 이른다. 64년생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76년생 구구일로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라. 88년생 빈틈없이 처리한다면 반격을 좌우할 만한 위상을 갖추게 될 것이다. 00년생 특별히 행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1, 65</p>	<p>34년생 신속하게 처리하면 상당한 재물을 얻을 수도 있느니라. 46년생 뜻밖의 협조가 있으나 효과는 미미하다. 58년생 막대한 풍문에는 귀 기울일 필요 없다. 70년생 돌발 사태에 만전의 대비를 해야 할 때다. 82년생 취할 수 없다면 포기하는 것이 상책이다. 94년생 위험 신호를 무시하다가가는 공든 탑이 무너진다. 행운의 숫자 : 32, 64</p>
<p>41년생 외출을 삼가면 면역 하겠다. 53년생 이익에 집착한다면 오히려 손해를 보리라. 65년생 치밀한 분석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77년생 확인만 잘 해도 사고를 예방한다. 89년생 예전에 접하지 못했던 것이다. 01년생 잠자코 기다리고 있어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39, 53</p>	<p>35년생 약속을 분명히 지켜야만 신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47년생 실의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무리가 없겠다. 59년생 새로운 것을 접하더라도 초심을 잃지 말라. 71년생 격리되거나 이동할 수도 있는 기운이 다분하다. 83년생 과정상의 괴로움은 보이나 결실은 달콤하리라. 95년생 속덕은 있지만 앞장 결과물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05, 78</p>